



STATE OF NEW YORK | EXECUTIVE CHAMBER

ANDREW M. CUOMO | GOVERNOR

즉시 배포용: 2014년 11월 1일

CUOMO 주지사, 청소년의 운전 중 문자 발송을 단속하는 법이 오늘부터 발효된다는 소식을 발표하다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청소년 운전자와 운전 경험이 미숙한 사람들의 운전 중 문자 발송을 단속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법이 오늘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.

이 법에 따라, 운전 중 문자 발송으로 기소된 신규 및 청소년 운전자들은 초범인 경우 120일간 운전면허 정지에 처해지고, 재범 또는 면허 재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같은 죄목으로 기소될 경우 운전면허가 1년 동안 정지됩니다.

“운전 습관은 초기에 형성됩니다. 우리는 운전 중 문자 발송이 안전하지 않고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”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. “운전 중 문자 발송으로 인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피할 수 있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. 이와 같은 새로운 처벌로 인해 이제 젊은 운전자들의 행동을 바꾸고 뉴욕의 도로가 보다 더 안전해지기를 원합니다.”

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기관(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)에 따르면, 치명적인 추돌사고를 경험한 20세 이하 운전자들의 10%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.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연령 그룹에 속해있습니다.

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안전 운전을 최우선 사항으로 삼고 있습니다. 알코올 또는 마약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오지 못하도록 보다 엄격한 형벌을 가하고, 과속 및 공격형 운전자들을 엄중 단속하며, 운전자들이 차를 세우고 안전하게 이동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에 특별 “메시지 발송 존(Texting Zones)”을 설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, 이 행정부는 뉴욕의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변화하는 트렌드와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활동은 New York Thruway가 최근에 역사상 가장 안전한 시기를 맞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.

오늘 발효되는 강화된 형벌은 2014-2015년도 예산의 일부로 통과되었습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가지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
We Work for the People
Performance * Integrity * Pride